



# 중국, 인도 등 전세계 철광석 수요 급격히 증가

## 조강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급차질 우려



올들어 세계 조강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철광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철강협회(IIS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세계 61개국 조강생산량은 6억734만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6%나 증가했으며, 이같은 증가추세는 수요증가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철광석 공급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철광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광석 생산업체들이 이같은 추세와 각 철강 메이저들의 생산량 전망에 근거하여 철광석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호주와 브라질의 올해 1/4분기와 2/4분기까지 철광석 수출물량은 날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5월

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3/4분기 몬순 시즌이 시작되는 인도의 대중국 수출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호주와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 물량확대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이 인도로부터 수입한 철광석 물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290만톤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인도가 내수 증가 및 인도의 철강 생산업체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 장기적으로 철광석 수출 물

량을 중단하려는 로비로 인해 철광석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이같은 상황하에 브라질의 대표적인 철광석 수출 업체인 CVRD는 브라질 북부 지역에 위치한 Carajas 광산의 연간 철광석 수출 능력은 현재 7,000만톤에서 8,500만톤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항만 설비를 강화해 오는 9월부터 연간 철광석 처리물량을 1억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Tubaro 및 Itaguaí항에는 설비확충을 Guajuba에 신규 선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호주는 Dampier항의 설비 강화 및 철도 수송 능력을 확충해 연간 처리능력을 1억1,600만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2007년말까지는 연간 처리능력을 1억4,000만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강철공업협회(CISA)李世俊 부비서

장은 지난 7월31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2006-2010년 중국의 강재수요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0년 조강 소비량은 최소 4.7억톤, 최대 5.6억톤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 중국 GDP가 최소 8% 이상 성장할 것을 고려할 경우, 4.9억톤 내외의 소비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강재 환산시 4.7억톤에 해당된다. 특히, 2010년 철강수요의 부문별 전망에서는 철도용 강재 소비량은 549만톤, 건설용 2.26-2.58억톤, 자동차용 1,520-1,840만톤, 조선용 1035만톤, 컨테이너 530만톤, 가전 720만톤 등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중국의 금년 1-7월간 조강 생산량은 2억3,603만톤으로 전년동기비 18.9% 증가하였으며, 강재 생산량은 2억5,989.6만톤으로 전년동기비 25.1% 증가하였다. 이 기간중 중국 조강 생산량의 세계 점유비는 전년동기의 30.9%에서

33.7%로 2.8% 포인트 상승하는 등 강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철강업체들도 원료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수도강철과 호북성 의창시(宜昌市)는 지난 6월26일 80억원을 투자하여 8억톤 규모의 현지 철광석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년 6월29일, 무한강철과 호북성 은사자치주(恩施) 역시 철광석 자원을 개발하기로 공포했다. 호북성에 분포한 인(磷, P) 함유 철광석은 1959년에 발견되었으며, 그 부존량은 22억톤 규모이다. 동 자원은 호북성 의창시, 은사자치주 등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 함량이 높아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지 않았던 자원이다.

수도강철과 호북성 의창시 정부의 현지 철광석 개발 합의에 따라 정광분(精鑛粉) 생산능력은 2007년에 200만톤, 2010년경에는 800~1,000만톤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 세계해운시장에서의 중국 주도권 지속될 듯 제조업체들의 중국 이전 아직도 현재 진행형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급속한 무역성장으로 세계해운시장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왔던 중국이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차이나이펙트’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물류, 교통운송 및 원거리 정보 처리 박람회’의 일환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각국 참석자들은 향후 수년간 중국의 무역성장은 계속돼 중국과 유럽, 미주 사이의 컨테이너시장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TSA(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고위 관계자는 “전세계 제조업의 중국 이전 추세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현재도 수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는 중국과 연계된 해상 무역 시장이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독일물류협회(BME) 관계자 역시 “2005년 기준 중국의 평균 노동임금은 독일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며, 다수의 대형 글로벌 소매업체들은 중국산 제품을 사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도 중국으로의 생산지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COSCO Logistics 천리(陳立) 부사장은 “대륙간 무역의 90%는 해상운송 및 포워딩, 하역 등 관련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화물은 해운 컨테이너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